

野, 테러방지법 막기 무제한 필리버스터

김광진 5시간33분·은수미 10시간18분

여야, 선거구 획정 26일 처리 물밑 교섭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24일 이른 새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52년 만에 선보이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소상히, 그리고 장시간 발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1964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 발언(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15분 법사위 발언(3선 개헌안을 저지)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된 뒤 2012년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은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운동화 차림으로 발언대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새벽 2시30분께 운동화를 신고 발언대에 올랐던 은 의원이 발언대를 내려온 시각은 낮 12시48분. 10시간 18분이 흐른 뒤였다. 은 의원은 더민주 김광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본회의 단상에 오른 무제한 토론자였다.

박 의원 다음으로는 더민주 유승희·최민희, 정의당 김제남, 더민주 김경협·강기정, 정의당 서기호, 더민주 김용익·김현 의원 등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오는 26일 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가 물밑 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자충수'라고 보고 주 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날 26일 열리는 본회의까지는 필리버스터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지목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수정 여부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더민주가 그동안 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뒤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정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안전처에 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가운데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안전처를 국정원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테러방지법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내세우며 거대 양당과 차별화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10시간 18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며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합의를 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 총체적 실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과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3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하고 국민이 경제실정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은 형편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권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

민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 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비대위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고 하면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MB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보조를 맞췄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후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그 폭주는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호남·제주 공천신청자 면접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4일 충청·호남·강원·제주 지역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이어갔다.

25일에는 부산·울산·경남, 26일에는 대구·경북 등 새누리당 강세지역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도 공천면접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 대표의 공천면접이라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인 김정훈 정책위의장(부산 남갑)도 이날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대구·경북 공천면접에서는 현역 의원과 이른바 '진박(眞朴·진실한 진박근혜

계)' 연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대구동을 현역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 동갑 현역인 류성결 의원과 정중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충청·호남·강원·제주지역 공천면접에는 이인제 최고위원, 공관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총장,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친동생인 성일중씨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지역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현 최고위원(순천·곡성)과 주영순 의원(무안·신안) 등은 이날 면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테러방지법 즉각 철회하라" 촉구 잇따라

더민주 예비후보들

광주지역 정치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병훈



송갑석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낮 12시부터 테러방지법 문제점을 알리는 '12시간 로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23일부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라면서 "밤 12시까지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께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훈 광주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테러방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직권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의 부칙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테러가 의심된다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이남재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로 이날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과는 무관하게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사찰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이용빈, 광산갑 출마 선언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월곡공원경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를 민주주의와 자치의 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 정치선언'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정치·주권자



정치·광주정치의 완성판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의사출신 시민운동가로, 광주 가정의학과 사회장을 역임하며 경로당추진의 제도를 기획한 바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치료해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의당 강은미, 서구를 출마 선언

정의당 강은미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웃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강 전 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 "송과 세모녀 사건 처럼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무책임한 복지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용화 "광주천 생태공원 조성하겠다"

국민의당 정용화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4일 광주 시민이 스포츠와 생태탐방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 '광주천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천을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하상정비를 통해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닌 자



연적인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공원의 천변 좌우로 경관조명시설 설치, 습지나 하천에 잘 적응하는 나무나 수초 식재,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